

유가 불안 지속 가운데 빅테크 실적 대기하며 3대지수 하락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마감후 실적발표 관망 한편, 유가에 의한 하방압력

- 미 증시는 DOW -0.01%, S&P500 -0.14%, NASDAQ -0.57% 하락. 유틸리티, 소재, 에너지 강세, 통신서비스, 임의소비재 약세
- 알파벳, 테슬라 등 주요기업 실적발표 앞둔 관망 가운데 중동 리스크발 유가 상승에 의한 증시 하락
- 말렉 시버트파이낸셜 CIO 는 AI 낙관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영진에 입증 책임이 돌아갔으며, 향후 실적발표에서는 AI 관련 포부보다는 자본수익률(ROIC)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

마감후 대형기술주 실적 일정, AI 투자 과열 논란과 자본지출 수익성 입증 과제

- 알파벳은 2Q26 매출 시장예상치 상회, CAPEX 지출 가이드선도 \$1,900 억→\$2,050 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적극적 투자 지속 의지 확인. 이에 마이크로, SK 하이닉스 ADR 등 반도체주 시간외 상승. 다만, 알파벳 잉여현금흐름이 1 분기 \$100 억대로 축소된 데 이어 2 분기 마이너스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며 알파벳은 시간외 하락중
- 테슬라 역시 2Q26 매출은 시장예상치 상회, EPS 는 하회. 로봇택시와 AI 인프라 투자 증가에 의한 잉여현금흐름 마이너스 전환

FOMC 앞두고 중동발 유가상승세 지속에 인플레이 우려 ↑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86.8(+3.0%), Brent \$94.1(+3.4%). 브렌트유 6 주만에 최고치. 미-이란 강경 대치 및 군사공격이 지속되면서 중동 선박 통행이 제한되고 원유 공급 난항에 대한 불안 확대
- 다만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한 100.9 기록.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유로존 인플레이 우려에 유로화 강세 영향
- 국제금리 상승 10Y 4.657%(+2.9bp), 2Y 4.302%(+3.8bp). 다음주 FOMC 앞두고 연준 위원 블랙아웃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경계감 ↑. CME FedWatch 상 7 월 금리인상 가능성 일주일 전 대비 약 10%→약 34% 수준까지 상승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GOOG	알파벳	-1.2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-2%대 하락중. AI 수요 대응을 위한 '26년 CAPEX가이드선을 \$180~190B →\$195~205B로 상향한 데 따른 비용 부담 우려로 주가 하락. 2분기 매출은 컨센 상회,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+82%YoY 기록하며 수익성 증명. 반면 EPS는 컨센 소폭 하회
TSLA	테슬라	-1.3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-4%대 하락중.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EPS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시간외 주가 하락. 잉여현금흐름은 -\$1.09B로 예상치(-\$3.64B)보다 양호했지만 적자 전환. ASP 하락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악화(16.8%) 및 AI·오퍼티브·사이버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CAPEX 집행으로 영업비용이 급증(+47% YoY)
IBM	IBM	-2.3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-0%대 하락중. 매출·EPS 모두 시장 예상치 하회했으나, 앞선 잠정실적 발표에서 이미 주가 급락한 바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은 모습. 연간 매출 가이드선 (4~5% 성장) 및 FCF(전년대비 +\$1B) 기존 전망 유지
AMD	AMD	+1.5%	엔트로픽과 수십억 달러 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상승. 엔트로픽은 '27년 상반기부터 AMD MI450 AI가속기를 최대 2GW 규모로 도입 예정. 인프라 구축에는 AMD의 헬리오스 랙 스케일 시스템도 함께 공급될 예정. 또한 AMD는 엔트로픽에 최대 \$5B 를 투자할 계획. 키뱅크는 2GW 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AMD에 \$27.2B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
SMCI	슈퍼마이크로 컴퓨터	+19.8%	전일 장 마감 후 잠정실적발표.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GPM 가이드선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가 급등. '26 회계연도 4분기 신규수주가 \$60B를 넘어서며 수주잔고 사상 최고치 기록. 우호적인 고객·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 GPM 가이드선을 기존 8.2%~8.4%→15%~17%로 상향 조정
GEV	GE버노바	-8.7%	실적발표.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하회하며 주가 하락 마감. 매출은 예상치 상회, 전력·전기화 부문 수주는 +88%YoY 급증한 \$24.2B 기록. 다만 풍력 부문 신규수주가 40% 감소, 해상풍력 프로젝트 비용이 늘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. \$176B 규모의 수주잔고를 근거로 '26년 매출 가이드선을 기존 \$44.5B~\$45.5B→\$45.5B~\$46.5B로 상향 조정